

# 2009년 이후 자산빈곤과 불평등 추이와 변화요인 분석

최바울\* 김성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 빈곤과 불평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요인과 자산항목별 불평등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 빈곤과 불평등의 추세를 살펴보고, 빈곤요인분해와 자산원천별 분해를 이용하여 빈곤율 및 불평등 변화의 요인을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산 절대빈곤율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200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자산 상대빈곤율과 상위 자산층의 비율은 감소하고 자산 중산층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특히 자산점유율에서 5분위만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셋째, 절대빈곤율의 감소는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와 함께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나,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성장요인에 의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특히 50대 미만, 전문대졸, 경상도, 임시일용/자영자, 전월세 거주자 등). 넷째, 자산불평등의 감소는 부동산자산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 이는 주로 고소득층의 부동산자산가치가 비거주주택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중하위계층은 부동산자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자산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1. 서론

다들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혹은 단순히 어려운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까지 한다. 어느 것이 사실에 가까운지, 저마다 내놓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997년말 외환위기,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속한 경기침체와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빈곤 상황이 단순히 경제 위기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산업부문의 노동자들과 연관 산업의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위기로 내몰린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 소비지출지출 여력이 줄고, 이는 곧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내수가 침체되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

\*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    \*\* 중부대학교 시간강사

그런데 일을 하는 동안 쌓아온 예금이나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나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자산은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 다시 재기할 때까지 안전망을 제공해 주고, 교육이나 창업 등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처럼 자산보유는 소득빈곤을 일정기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 완화 또는 빈곤을 축소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계층들의 자산증식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자산이 적은 계층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자산 투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투자 실패시 신용불량자 전략, 사회경제적 양극화 고착, 노동의욕 상실, 상대적 박탈감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곤 한다. 게다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는 대부분 재산기준을 가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이상은 외, 2011).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자산의 중요성은 소득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산에 대한 국내 연구는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자산 불평등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권순원 외 1992; 이정우·이성림, 2001; 김진영, 2002; 남상호, 2007, 2008; 전승훈·임병인, 2008). 우리나라의 자산빈곤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사이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이태진 외 2005; 강성민 2007; 석상훈, 2010; 이상은 외, 2011; 유태균 외 2014).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빈곤의 규모만을 제시하거나 개별 가구들의 자산빈곤 가능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기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 빈곤의 실태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요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더불어 자산 불평등의 실태와 자산항목별 불평등 기여도 또한 파악하고자 한다.

## II. 기존문헌 연구<sup>1)</sup>

자산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자산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는 반면 자산빈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산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Haveman and Wolff(2001)와 Caner and Wolff(2004)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Haveman and Wolff(2001)는 자산빈곤이란 “가구나 개인이 일정기간(period of time) 동안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s)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는 자산류의 자원(wealth-type resource)을 가진 경우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빈곤은 자산액이 소득 빈곤선 수준의 3개월분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1983-1998년사이의 전체적인 자산빈곤과 하위집단별 추세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전반적인 자산 수준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빈곤의 수준은 오히려 증가했다.

---

1) 이하 내용은 이상은 외(2011), 김태성 외(2013), 유태균 외(2014)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Caner and Wolff(2004)는 자산빈곤선을 소득빈곤선의 3개월치 수준으로 설정하고 1984-1999년사이의 자산빈곤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빈곤의 급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산빈곤은 감소되지 않았으며, 특히 대졸 학력자나 자녀를 부양하는 기혼부부가구는 자산빈곤 가능성이 낮은 반면, 고졸이하 학력자나 독신 노인 등은 그 가능성이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자산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오다(권순원 외 1992, 이정우·이성림, 2001, 남상호, 2007, 2009, 전승훈·임병인, 2008), 최근 들어서야 자산빈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이태진 외, 2005, 강성민, 2007, 석상훈, 2010, 이상은 외, 2011, 유태균외 2014).

권순원 외(1992)는 1988년 전국 5,107가구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자산의 지니계수가 각각 0.404와 0.579로 소득에 비해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정우·이성림(2001)은 대우경제연구소의 가계경제활동 패널 자료(1993-1998)를 분석한 결과 순자산의 지니계수가 1993년 0.571로부터 1998년 0.655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의 부채 급증과 부유층의 부동산 보유증가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남상호(2007)는 노동패널 1999-2004년의 자료를 분석하여 총 자산 중 부동산의 점유비중이 크고, 소득에 비해 자산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난 점을 발견하였다.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전승훈·임병인(2008)은 2000년 이후 가계자산 구성에서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크게 높았졌고, 자산불평등도는 차입에 의한 자산 보유가구가 증가하면서 2000년에 비해 2006년에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2000년 가구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한 이태진 외(2005)는 가구자산 중위값의 50%로 자산빈곤선을 설정한 후 순자산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가구의 32.4%가 자산빈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호(2007)는 한국노동패널 1999년과 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빈곤을 분석한 결과, 1999년 27.5%, 2004년 28.8%가 빈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월세 거주일수록, 가족 구성원 중 아동 또는 노인이 있을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2007)은 노동패널 1999-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빈곤선을 자산 중위값의 50%로 설정하여 자산빈곤에서의 진입·탈출가능성에 대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을 축적한 노인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 가구일수록 자산빈곤 탈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남상호(2009)는 한국복지패널 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계층의 자산 보유 불평등도와 자산보유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절대빈곤층의 계층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금융자산 및 주택자산을 보유할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상훈(2010)은 복지패널 2006-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빈곤 결정요인과 자산빈곤 유입·탈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고령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상태일수록, 광역시이하 거주자일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고, 탈출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외(2011)는 노동패널1999-2008년까지 10여년간 전반적인 자산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자산빈곤 역시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어 왔으며, 1998년과 2008년사이 성장요인보다는 분배요

인이 빈곤율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빈곤율의 변화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태균 외(2014)는 고령화연구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빈곤선을 절대빈곤선(유동자산이 최저생계비 3개월이하)과 상대빈곤선(중위순자산의 50%)으로 설정하고 중고령 특성중 자산빈곤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항 및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가보유, 고소득, 건강상태양호, 독신가구, 대도시권, 아파트 거주자, 비경활, 자영업일 경우 계속 자산빈곤층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 1. 자산빈곤의 개념 및 빈곤선<sup>2)</sup>

자산빈곤 개념에 관한 연구는 Oliver and Shapiro, Sherraden, Haveman, Wolff, Caner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Oliver and Shapiro(1990)는 자산빈곤을 가구가 소유한 금융자산(financial asset)의 가치가 0 또는 음(negative)일 경우로 정의하였다. Haveman and Wolff(2001)는 자산빈곤이란 “가구가 개인 일정기간(period of time) 동안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하기 않은 자산류의 자원(wealth-type resource)을 가진 경우”로 정의하였다. ‘일정기간’이란 어떠한 사건으로 가구의 수입이 차단되었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도록 요구받는 기간(보통 3개월), 유형자산 자원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net worth), 가계금융자산을 공제한 순자산, 퇴직연금(IRAs) 등의 연금자산을 제외하고 화폐전환이 용이한 자산과 현금 등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또한 유형자산 자원이 5,000달러 이하면 절대자산빈곤에 해당된다고 정의하였다.

Short and Ruggles(2004)는 Haveman and Wolff(2001)의 자산빈곤 정의를 이용하여 노인 여성의 자산빈곤을 분석하였고, Gomick, Sieminska, and Smeeding(2009)은 Haveman and Wolff(2001)의 정의 중에서 일정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노인 여성의 자산빈곤을 분석하였다. Brandolin, Magri, and Smeeding(2010)은 전기의 순자산이 예비적 저축률과 소득빈곤선의 곱보다 작으면 자산빈곤으로 규정하고, 기준 상대소득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 중위값의 50%로 규정하였고, 연소득빈곤선의 1/4을 절대적 자산빈곤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의 경우 자산빈곤 또는 자산빈곤층에 대한 개념적 정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유태균외, 2014). 다만 자산빈곤에 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실증분석을 위한 개념화 수준에서, 즉 어떤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 기준선보다 자산이 부족한 상태를 자산빈곤층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자산빈곤을 측정하는 두 가지 기준은 상대적 자산빈곤선과 절대적 자산빈곤선이 사용되고

2) 이하 내용은 이상은 외(2011), 임병인(2012), 김태성 외(2013) 등에 크게 의존해 정리한 것이다.

있다. 상대 자산빈곤선은 각자 정의한 자산의 \*\*% 이하를 자산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이태진 외(2005)는 자산빈곤선을 추출하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자산을 순자산이라 정의한 뒤, 부동산+동산+금융자산-부채 방식으로 계산하고, 자산빈곤선을 기준자산에 대한 중위자산의 50%로 설정하였다. 반면 절대 자산빈곤선은 각자 정의한 자산이 최저생계비의 \* 개월보다 적은 가구를 자산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이다(남상호, 2009; 석상훈, 2011; 이상은 외, 2011).

그렇지만 두 빈곤선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몇 % 혹은 몇 개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석상훈, 2011; 임병인, 2012; 유태균 외, 2014).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산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빈곤측정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상대적 빈곤선과 절대적 빈곤선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표 1> 선행연구의 자산빈곤 측정방식

구분	연구자	자산기준
외국	Oliver&Shapiro(1990)	·가구 소유 금융자산(financial asset)의 가치가 0 또는 음(negative)
	Haveman&Wolff(2000)	·총자산, 가구용자금을 제외한 순자산, ·유동자산의 일정비율과 5,000불이하의 자산보유자
	Caner&Haveman(2004)	
	Short&Ruggles(2004)	
	Brandolin, Magri, and Smeeding(2010)	·전기의 순자산이 예비적 저축률과 소득빈곤선의 곱보다 작은 경우 ·상대소득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절대적 자산빈곤은 연 소득빈곤선의 1/4
국내	이태진 외 (2005)	·중위자산의 일정비율 40-50%
	남상호(2007)	·중위순자산의 일정비율 30, 50, 70%
	남상호·권순현(2008)	·중위자산의 50%
	남상호(2009)	·자산의 최저생계비 6개월이하
	강성민·유태균(2009)	·중위순자산의 50%
	김윤민(2010)	·순자산<최저생계비150%×3개월      ·순자산<중위소득의60%×3개월 ·유동자산액<최저생계비150%×3개월    ·유동자산액<중위소득의60%×3개월
	석상훈(2010)	·자산의 최저생계비 3개월 이하      ·중위자산의 50% ·자산기준 : 자산1_순자산, 자산2_자산1-자가주택, 자산3_금융자산
	이상은 외(2011)	·자산의 최저생계비 3개월 이하
	유태균 외(2014)	·유동자산(금융자산+보험자산)이 최저생계비 3개월 이하 ·중위순자산의 50%

자료: 유태균 외(2014), p.40 등을 참고로 재구성

## 2. 분석방법

시점간 빈곤의 변화는 성장, 그리고 분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Datt & Ravallion(1992), Shorrocks(2013)는 소득빈곤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빈곤율의 변화를 성장요인과 분배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자산빈곤의 변화 또한 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성장효과와 분배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시점간의 빈곤율 변화( $\Delta P=P_2-P_1$ )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성장요인은 초기의 분배(분포)상태( $D_1$ )를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시점간 자산 평균의 차이로 인해 발생된 빈곤의 변화를 의미한다. 분배요인은 초기의 자산평균( $\mu_1$ )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시점간 분배(분포)의 변화로 인해 발생된 빈곤의 변화로 볼 수 있다.<sup>3)</sup>

$$\Delta P = \underbrace{[P(\mu_2 \cdot D_1) - P(\mu_1 \cdot D_1)]}_{\text{성장요인}} + \underbrace{[P(\mu_1 \cdot D_2) - P(\mu_1 \cdot D_1)]}_{\text{분배요인}} \quad (1)$$

( $P_1$  : 초기 시점의 빈곤율,  $P_2$  : 후기 시점의 빈곤율,  $D_1$  : 초기의 분배상태,  $D_2$  : 후기의 분배상태,  $\mu_1$  : 초기의 자산평균,  $\mu_2$  : 후기의 자산평균)

다음으로, 자산불평등도의 변화에 각 자산항목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분해하기 위하여 Shorrocks(1982)의 소득원천별 분해를 이용하였다. 소득원천별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항목의 전체소득 대비 비중과 소득항목별 불평등지표  $GE(\alpha)$ , 소득항목과 전체소득간의 상관계수를 구해야 한다. 이 값을 이용하여 전체 불평등에 대한 소득원천의 절대적 기여도와 상대적 기여도를 분해할 수 있다.<sup>4)</sup>

$$GE(\alpha) = \frac{1}{\alpha^2 - \alpha} \left[ \frac{1}{n} \sum_i \left( \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quad GE(\alpha) = \sum_f S_f \quad (2)$$

$$S_f = s_f \cdot GE(\alpha) = \rho_f \cdot x_f \sqrt{GE(\alpha)_f / GE(\alpha)}$$

( $y$  : 가구(혹은 개인)  $i$ 의 소득,  $\mu$  : 평균소득,  $\alpha$  : 각 소득계층에 대한 가중치,  $S_f$  : 소득원천  $f$ 가 전체 불평등도에 미치는 절대적인 기여분,  $\rho_f$  : 소득원천  $y_f$ 와 전체소득  $y$ 의 상관계수,  $x_f$  : 소득원천  $y_f$ 와 전체소득  $y$ 에 대한 비율(= $\mu_f/\mu$ )

3) 빈곤요인 분해는 Shorrocks(2013)의 비모수적 방법(the shapley and non parametric methodology)으로 추정된 STATA의 DRDECOMP 모듈을 이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4) 자산원천별 분해는 Shorrocks(1982)의 방법으로 추정된 STATA의 INEQFAC 모듈을 이용하였다.

### 3.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자산 세부항목별로 자료가 제공되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12차(2009년)부터 17차(2014년)까지이며, 특히 2009년에는 표본의 전국대표성 확보를 통해 가구 표본을 추가함에 따라 전국을 아우르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더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패널에서의 자산은 크게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로 구성된다. 우선 부동산 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 거주 주택 이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 건물, 임야, 토지), 임차한 부동산 보증금 등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갯돈과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순자산(=부동산자산+금융자산+부채)인 자산1, 순자산에서 자가 및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한 자산2, 금융자산인 자산3으로 구분하였으며, 주로 자산1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산빈곤의 기준이 되는 절대빈곤선은 최저생계비<sup>5)</sup>의 3개월과 6개월을 모두 제시하되, 요인분해 및 원천별 분해에서는 최저생계비 6개월을 기준으로 한 자산2를 기준으로 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 기준은 대체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연계되어 기준이 정해지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90~270일로 확대할 계획이 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6개월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자산의 정의와 구분

구분	구성 내역	
자산 유형	부동산	거주 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 그 외 부동산(건물, 임야, 토지) 및 보증금
	금융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갯돈과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부채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자산 정의	자산1	부동산자산+금융자산+부채
	자산2	자산1-자가 및 전월세보증금
	자산3	금융자산

주: 부동산 세부항목 중 정확한 시가를 알지 못해 범주형으로 응답한 경우, 제대로 응답한 가구의 시가를 범주로 분류해 구한 평균값을 구해 이를 범주별 평균값으로 대체함.

5)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1~6인)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였으며, 7인 이상인 가구는 간단한 회귀분석(최저생계비= $a+\beta_1$ 가구원수+ $\beta_2$ 가구원수<sup>2</sup>+ $\epsilon$ )을 이용해 추정된 값을 적용하였다.

## IV. 자산빈곤 기초통계

### 1. 자산과 부채의 변화 추이

먼저 2009년(노동패널 12차년도)부터 2014년(노동패널 17차년도)까지의 자산 구성 세부항목별 평균값의 추세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의 모든 분석결과는 2010년 물가 기준으로 조정된 자료에서 횡단면 가가중치를 적용한 후에 분석된 것이다(필요시 가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전반적으로 2009년에 비해 2010년 자산평균이 6.9% 감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자산이 하락하고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자산은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산 구성 세부항목 평균을 비교해 보면, 2014년의 경우 주택외 부동산의 평균가격이 약 25,673만원으로 가장 컸고, 자가주택이 20,303만원,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8,850, 그리고 금융기관 부채 7,94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8,850만원, 금융기관 부채 7,943만원, 개인적으로 빌린 돈 5,202만원, 기타 4,58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평균액의 추이를 살펴보면<sup>6)</sup>, 금융자산의 경우 은행예금은 2009년(2010년)에서 2,913만원(2,659만원)에서 2014년 2,993만원으로 2.8%(12.6%), 주식, 채권 및 신탁은 2,898만원(3,172만원)에서 3,585만원으로 23.7%(13.0%), 저축성보험은 1,340만원(1,288만원)에서 1,501만원으로 12.0%(16.5%), 빌려준 돈은 4,924만원(4,702만원)에서 6,004만원으로 21.9%(27.7%) 증가하였다. 반면 받을 계돈은 884만원(763만원)에서 679만원으로 -23.2%(-11.0%) 감소하였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자가는 21,036만원(20,535만원)에서 20,303만원으로 -3.5%(-1.1%), 주택 외 보증금은 2,702만원(2,485만원)에서 2,305만원으로 -14.7%(-7.2%), 주택외 부동산은 28,920만원(25,089만원)에서 25,673만원으로 -11.2%(+2.3%) 감소하였다. 반면 전세보증금은 4,030만원(4,320만원)에서 4,865만원으로 20.7%(12.6%) 증가하였다.

부채의 경우 금융기관 부채는 6,708만원(6,948만원)에서 7,943만원으로 18.4%(14.3%), 비금융기관 부채는 2,319만원(2,636만원)에서 2,611만원으로 12.6%(-0.9%),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2,747만원(3,045만원)에서 5,202만원으로 89.4%(70.8%), 전세 및 임대보증금은 7,108만원(8,122만원)에서 8,850만원으로 24.5%(9.0%) 증가하였다. 반면 갚아야할 계돈은 1,018만원(467만원)에서 777만원으로 -23.7%(+66.4%) 감소하였다.

총자산과 총부채, 순자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2009년(2010년)에서 23,285만원(21,906만원)에서 2014년 22,755만원으로 -2.3%(+3.9%) 감소한 반면, 총부채는 7,318만원(7,875만원)에서 8,881만원으로 21.4%(12.8%) 증가하였다.

6) 일반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한 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득이나 소비 등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한국은행, 2006). 특히 자산은 실업 등으로 즉각 타격을 받는 소득보다는 더 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본격적으로 여파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0년의 수치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자산1’은 19,800만원(18,426만원)에서 18,781만원으로 -5.1%(+1.9%) 감소(증가)하였고, 자산1에서 자가 및 전세 보증금을 뺀 ‘자산2’는 6,050만원(4,854만원)에서 4,975만원으로 -17.8%(+2.5%) 감소(증가)한 반면, 자산2에서 금융자산을 뺀 ‘자산3’은 3,439만원(3,237만원)에서 3,587만원으로 4.3%(10.8%) 증가하였다.

한편 마이너스(-)를 0으로 처리한 자산은 16,222만원(15,004만원)에서 15,588만원으로 -3.9%(3.9%) 감소하였다. 자산1의 중위값은 9,575만원(10,000만원)에서 11,922만원으로 24.5%(19.2%) 증가하였다. 가구원수로 균등화시킨 자산1은 12,205만원(11,244만원)에서 11,676만원으로 -4.3%(3.8%) 감소(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산과 부채 기초통계(실질, 2010=100)

(단위: 가구수, 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금융자산	은행예금	3194	2913	3420	2659	3430	2652	3636	2637	3703	2766	3758	2993
	주식/채권/신탁	604	2898	475	3172	398	3719	299	3052	274	3172	262	3585
	저축성보험	1032	1340	868	1288	907	1373	833	1538	761	1532	2209	1501
	받을 깃돈	60	884	66	763	41	674	42	1006	41	656	35	679
	빌려준돈	35	4924	27	4702	26	3995	12	4830	18	4233	22	6004
	기타금융자산	10	1293	64	1618	74	1831	55	1990	60	2645	53	1993
부동산자산	자가	3820	21036	3761	20535	3792	20414	3841	20330	3864	20296	3918	20303
	전세보증금	2862	4030	2603	4321	2574	4302	2575	4388	2578	4790	2566	4865
	주택외 부동산	1548	28920	1404	25089	1392	26472	1451	27092	1409	27957	1434	25673
	주택외 보증금	749	2702	719	2485	715	2438	716	2349	689	2283	682	2305
기타	자동차	3876	908	3738	965	3730	1013	3841	1042	3852	1080	3846	1106
	기타 자산	99	4038	206	1067	172	962	217	957	177	1097	191	1614
부채	금융기관부채	2447	6708	2139	6948	2124	7131	2116	7540	2176	7771	2174	7943
	비금융기관부채	86	2319	79	2636	70	2040	39	1799	58	2923	64	2611
	개인적 빌린돈	330	2747	190	3045	219	2427	232	2864	165	3071	141	5202
	전세임대보증금	795	7108	691	8122	698	8207	758	9665	738	9523	750	8850
	갚아야할 깃돈	15	1018	8	467	5	606	5	611	6	775	8	777
	기타 부채	5	1088	4	2622	8	2237	11	3459	23	3409	15	4586
총자산	금융자산	3731	3439	3786	3237	3848	3211	3960	3062	4011	3173	4476	3587
	부동산자산	6690	20752	6370	19310	6371	19354	6419	19747	6446	19775	6486	19459
	기타자산	3890	1017	3769	1016	3759	1049	3867	1090	3878	1118	3879	1175
총부채	3183	7318	2731	7875	2744	7899	2791	8607	2814	8756	2809	8881	
자산 1	6710	19800	6388	18426	6382	18541	6429	18496	6455	18584	6493	18781	
자산 2	6710	6050	6388	4854	6382	5014	6429	4916	6455	4880	6493	4975	
자산 3	3731	3439	3786	3237	3848	3211	3960	3062	4011	3173	4476	3587	
(-)자산=0	6710	16222	6388	15004	6382	15228	6429	15226	6455	15205	6493	15588	
자산 1 중위값	6710	9575	6388	10000	6382	10288	6429	10820	6455	11052	6493	11922	
자산 1 균등화	6710	12205	6388	11244	6382	11408	6429	11467	6455	11546	6493	11676	
가처분소득 균등화	6710	2193	6388	2334	6382	2372	6429	2401	6455	2479	6493	2553	

주: 1) 가중치는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음(가구원수로 균등화시킨 자산1,

가처분소득은 개인가중치(가구가중치×가구원수)를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2-17차조사 원자료

## 2. 자산빈곤층의 규모

<표 4>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자산빈곤층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최저생계비의 3배로 정의된 절대빈곤율1을 기준으로 보면 자산1-3 모두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2010년 빈곤율이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빈곤율이 2009년 보다 낮았다. 다만 자산3의 감소폭이 자산1-2보다 3-6배정도 더 컸다.

최저생계비의 6배로 정의된 절대빈곤율2도 절대빈곤율1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절대빈곤율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절대빈곤율1과는 달리 절대빈곤율2에서는 자산1-3 모두 2010년 이후 빈곤율이 감소하다 2013년 일제히 소폭이나마 상승하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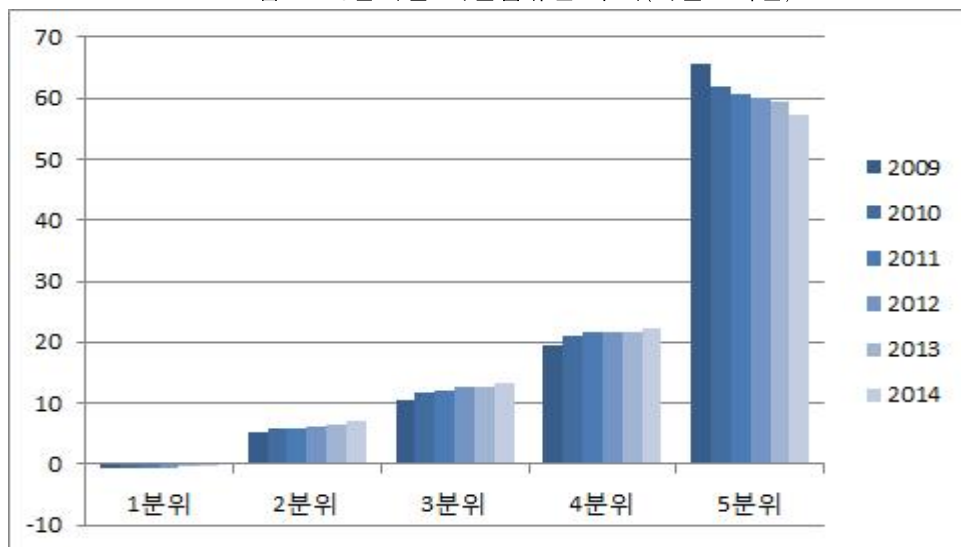
자산1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을 보면, 자산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0.5 < \text{중위값}(\text{med}) \leq 1.5$  경우만 유일하게 2009년 32.7%에서 2014년 37.7% 상승하였다. 연도별 상승/하락 양상 역시 나머지 두 기준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분위별 자산점유율을 보면, 1-4분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4년이 점유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5분위만이 유일하게 자산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 65.6%에서 2014년 57.3%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2010년 이후 자산1의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긴 하나 여전히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자산불평등의 정도가 소득불평등의 정도에 비하여 높고, 자산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까지 심화되다가 2000년대에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다는 분석과 일맥상통한 결과이다(전승훈·임병인, 2008).

<그림 1> 5분위별 자산점유율 추이(자산1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 12-17차조사 원자료

<표 4> 자산빈곤 및 자산불평등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절대 빈곤율1	자산1	8.7	7.6	7.4	6.6	6.6	6.5
	자산2	43.3	41.2	41.0	39.5	40.8	38.6
	자산3	47.7	45.3	43.9	42.5	42.0	34.3
절대 빈곤율2	자산1	10.5	9.2	9.3	8.2	8.5	7.7
	자산2	48.1	47.0	46.6	44.6	46.2	43.1
	자산3	56.6	54.7	54.0	51.4	51.9	43.5
자산1 상대빈곤율 (가처분소득)	중위값<=0.5	30.7	29.3	30.0	30.2	29.1	28.6
	0.5<중위값<=1.5	32.7	34.7	33.8	35.4	37.0	37.7
	1.5<중위값	36.6	36.0	36.1	34.4	33.9	33.8
자산1 점유율	중위값<=0.5	19.4	17.1	17.3	15.3	15.6	14.5
	1분위	-0.5	-0.6	-0.5	-0.6	-0.3	-0.3
	2분위	5.1	6.0	6.0	6.3	6.6	7.2
	3분위	10.4	11.6	12.1	12.6	12.7	13.4
	4분위	19.4	21.0	21.6	21.6	21.6	22.4
지니	5분위	65.6	62.0	60.8	60.0	59.3	57.3
	자산1	0.647	0.614	0.604	0.598	0.587	0.569
	가처분소득	0.384	0.361	0.350	0.338	0.338	0.341

주: 1) 가중치는 횡단면 가구 가중치를 사용(가구원수로 균등화시킨 자산1, 가처분소득은 개인가중치(=가구가중치×가구원수)를 사용)

2) 절대빈곤율1은 빈곤선을 최저생계비의 3배로, 절대빈곤율2는 최저생계비의 6배로 정의(최저생계비는 매년 공표되는 가구원수별 금액을 적용).

3) 상대빈곤율과 자산점유율, 지니계수는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여 계산

4) 소득은 전년도의 소득임(즉, 2009년은 2008년도의 소득으로 산출)

자료: 한국노동패널 12-17차조사 원자료

### 3. 자산빈곤층의 특성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가구주 특성을 기준으로 자산빈곤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가구주 성별로 평균 순자산과 자산빈곤율 추이를 보면, 2009년과 2014년 남성 가구주의 평균자산액은 23,755만원에서 22,633만원으로, 여성 가구주는 13,352만원에서 12,410만원으로 각각 -4.7%, -7.1%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비빈곤가구의 자산이 줄고 빈곤가구의 부채가 들었지만 여성의 경우 그 절대금액이 남성에 56% 수준으로 낮았다. 자산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5년간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남성가구주보다 높았고 그 격차는 벌어졌다. 2009년과 2014년의 자산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 가구주 빈곤율은 8.1%에서 5.9%로 2.2%p 감소한 반면, 여성은 12.0%에서 10.1%로 1.9%p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자산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009년과 2014년 사이 평균 자산액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50대 가구주의 경우 2009년 평균자산액이 28,464만원에서 23,982만원

으로 -15.8%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자산빈곤율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빈곤율이 감소하였다. 30대의 경우 2009년 8.5%에서 2014년 4.7%로 3.8%p 감소한 반면, 50-60대는 0.7-0.8%p로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40대 이하에서는 빈곤층의 평균 자산이 증가하고(부채가 감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평균자산액은 컸으며, 2009년과 2014년 사이 중졸이하와 전문대졸은 평균 자산액이 증가한 반면, 고졸과 대졸이상은 평균 자산액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졸이상의 경우 2009년 30,850만원에서 2014년 24,920만원으로 -19.2%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자산빈곤율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낮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빈곤율이 감소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산빈곤율 감소폭이 컸으나 대졸이상의 경우 2009년 5.5%에서 2014년 5.0%로 0.5p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편,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는 빈곤층의 평균 자산이 증가하고(부채가 감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외의 평균 자산액이 지방보다 약 2배 정도 더 컸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균 자산액이 증가하여 그 격차는 줄어들었다. 경상권의 평균 자산액은 2009년 13,087만원에서 2014년 18,255만원으로 39.5% 증가하여 상승폭이 가장 컸다. 자산빈곤율의 경우 2009년 경상권이 2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인천, 전라, 충청, 서울 순이었으나 2014년에는 충청권이 4.6%로 자산빈곤율이 가장 낮았다. 자산빈곤율의 지역간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평균 자산액을 살펴보면, 자영자의 자산액이 가장 높고, 실업자가 가장 낮았으나, 다른 집단과는 달리 실업자의 평균 자산액은 2009년 8,333만원에서 2014년 10,065만원으로 늘어났다. 자산빈곤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평균 자산액과 마찬가지로 자영자의 자산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집단간 빈곤율 격차는 소폭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주거형태별로는 자가의 평균 자산액이 전/월세 가구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자가인 가구의 자산감소가 더 컸다(비빈곤, 빈곤가구 모두). 가구원수에 있어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평균 자산액이 증가하였다. 5인 이상, 2인 가구의 빈곤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1인 빈곤가구의 부채가 감소(-34.2%)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산빈곤층의 특성(자산1, 절대빈곤2 기준)

(단위: %, 만원)

		절대빈곤2			평균								
		2009	2014	격차	2009			2014			증가율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성	남성	8.1	5.9	2.2	23755	26718	-3466	22633	24807	-6604	-4.7	-7.2	90.6
	여성	12.0	10.1	1.9	13352	15811	-752	12410	14369	-1014	-7.1	-9.1	34.8
연령	29 이하	14.0	10.6	3.4	6047	7384	-336	5518	6472	-95	-8.7	-12.3	-71.7
	30-39	8.5	4.7	3.8	13718	15541	-1788	14950	15894	-1595	9.0	2.3	-10.8
	40-49	9.5	6.4	3.1	20968	24150	-3425	20009	21787	-2226	-4.6	-9.8	-35.0
	50-59	8.0	7.3	0.7	28486	31888	-5066	23982	27397	-11144	-15.8	-14.1	120.0
	60-69	6.6	5.8	0.8	29843	32605	-2588	27723	30053	-6066	-7.1	-7.8	134.4
	70 이상	9.4	7.0	2.4	21353	24450	-939	22888	25159	-129	7.2	2.9	-86.2
학력	중졸이하	11.1	9.3	1.8	13775	16145	-984	14518	16443	-415	5.4	1.8	-57.8
	고졸	10.4	7.8	2.6	17989	21183	-4953	16881	19075	-3361	-6.2	-9.9	-32.1
	전문대졸	10.5	7.3	3.2	18107	21026	-2207	19184	21316	-2868	6.0	1.4	29.9
	대졸이상	5.5	5.0	0.5	30850	33431	-4571	24920	27103	-10708	-19.2	-18.9	134.3
지역	서울	5.8	5.1	0.7	33190	36058	-2317	24954	27708	-3284	-24.8	-23.2	41.7
	경기/인천	13.4	12.3	1.1	30040	33206	-2077	24805	26651	-5274	-19.1	-19.7	154.0
	충청권	7.6	4.6	3.0	15563	17494	-1315	18234	19610	-1129	17.2	12.1	-14.1
	경상권	23.5	18.4	5.1	13087	15375	-3856	18255	19937	-4991	39.5	29.7	29.4
	전라권	10.6	8.2	2.4	13640	17121	-4252	18094	21489	-12228	32.7	25.5	187.6
경제활동	상용	8.8	5.9	2.9	20492	22366	-2577	19758	21516	-8230	-3.6	-3.8	219.3
	임시/일용	9.9	5.2	4.7	11469	13975	-1904	11374	13945	-2634	-0.8	-0.2	33.3
	자영자	13.1	8.6	4.5	30598	34253	-6057	27866	29933	-8567	-8.9	-12.6	41.4
	실업	7.7	6.4	1.3	8333	12202	-2844	10065	13497	-5130	20.8	10.6	80.4
	비경활	9.5	6.6	2.9	22038	25403	-891	20713	23300	-2699	-6.0	-8.3	203.0
주거	자가	1.8	1.1	0.7	30231	31039	-6651	28072	28607	-12859	-7.1	-7.8	93.3
	전/월세	19.8	15.7	4.1	9676	13481	-2415	9344	12545	-4442	-3.4	-6.9	83.9
가구원수	1인	16.1	15.6	0.5	8401	10799	-1718	6758	8744	-1130	-19.6	-19.0	-34.2
	2인	8.8	5.6	3.2	20709	23505	-1533	21517	23210	-2391	3.9	-1.3	56.0
	3인	7.4	5.9	1.5	20931	23175	-1768	20105	21765	-3483	-3.9	-6.1	96.9
	4인	7.0	5.2	1.8	24578	27166	-2281	23331	25301	-7103	-5.1	-6.9	211.4
	5인이상	11.2	7.1	4.1	26716	31643	-7701	24262	27710	-11476	-9.2	-12.4	49.0

주: 1) 절대빈곤1은 최저생계비의 3배로, 상대빈곤은 균등화 자산1 중위값의 50% 이하를 기준

2) 가중치는 개인가중치(가구가중치×가구원수)를 사용하였음.

자료: 한국노동패널 12-17차조사 원자료

## V. 자산빈곤 및 불평등 요인분해

### 1. 자산빈곤의 요인분해 결과

앞서 분석에 이어 2009년과 2014년간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성장요인과 분배요인으로 분해해 보았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산1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와 함께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나,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95%로 성장요인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자산빈곤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 모두에서 성장요인과 분배요인 모두 빈곤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더 큰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여성가구주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다소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분명한 사실은 가구주 성별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분배요인에 의해 빈곤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40대 이하에서 분배효과로 인해 빈곤이 상당히 감소(3%p 이상)하였다. 한편,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성장요인에 의해 빈곤이 소폭 증가했으나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학력별의 경우 학력이 낮아질수록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율이 가장 높은 중졸이하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28.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빈곤율이 가장 낮은 대졸이상에서 성장요인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켰으나, 분배요인에 의해 빈곤이 소폭 감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성장요인보다 분배요인의 빈곤감소효과가 큰 역할을 하였다. 경기/인천권은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51.3%로 더 높게 나타났다. 빈곤율이 가장 높고 빈곤감소율도 높았던 경상권의 경우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미미한 가운데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광역시는 오히려 빈곤율이 동기간 1.5%p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장요인보다 분배요인의 악화로 인해 빈곤이 증가하였다(반면, 도 지역은 분배요인에 의해 빈곤이 감소).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빈곤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분배요인에 의해 80~90%가 설명되었으나, 임시/일용, 자영자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별로도 동일하게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전/월세인 가구주의 빈곤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인 이상 및 2인 가구에서 빈곤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전반적으로 분배요인을 중심으로 빈곤이 감소되었다. 특이할 점은, 1인 가구의 경우 성장요인은 빈곤을 증가시켰으나, 분배요인의 빈곤감소효과가 더 커짐에 따라 빈곤이 감소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2009년-2015년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분배(개선)효과에 의한 빈곤감

소효과가 대부분 90% 내외로 높게 나타나, 자산빈곤층에 유리하도록 분배구조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장효과는 10% 내외로 낮지만, 자산빈곤층의 빈곤율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러한 성장은 친빈곤성장(pro-poor growth)으로 볼 수 있다. 다만, 50대와 대졸이상, 도지역, 1인가구에서는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성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 자산빈곤에서는 자산의 전반적 성장에 의한 빈곤 감소효과보다 분배악화에 의한 빈곤 증가효과가 훨씬 크다는 기존 연구결과(이상은 외, 2011)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표 6> 빈곤율 변화의 요인분해(2009-2014, 자산1, 절대빈곤2 기준)

자산1 절대빈곤		빈곤율(%)		빈곤율 차이(%p)	성장효과 (%p)	분배효과 (%p)	성장효과 (%)	분배효과 (%)
		2009	2014					
전체		8.7	6.5	-2.2	-0.1	-2.1	5.0	95.0
성	남성	8.1	5.9	-2.2	-0.1	-2.2	4.5	96.0
	여성	12.0	10.1	-1.9	-0.1	-1.8	6.2	93.3
연령	~29	14.0	10.6	-3.5	0.0	-3.5	0.0	100.0
	30-39	8.5	4.7	-3.8	-0.3	-3.6	6.6	93.4
	40-49	9.5	6.4	-3.1	-0.1	-3.0	3.5	96.8
	50-59	8.0	7.3	-0.7	0.1	-0.8	-13.0	113.0
	60-69	6.6	5.8	-0.8	0.0	-0.8	0.0	100.0
	70+	9.4	7.0	-2.4	-0.4	-2.0	15.8	84.2
학력	중졸이하	11.1	9.3	-1.8	-0.5	-1.3	28.3	71.7
	고졸	10.4	7.8	-2.6	-0.3	-2.3	10.0	89.6
	전문대졸	10.5	7.3	-3.2	-0.3	-3.0	7.8	92.2
	대졸이상	5.5	5.0	-0.4	0.1	-0.5	-20.5	120.5
지역1	서울	5.8	5.1	-0.7	-0.1	-0.6	16.4	83.6
	경기/인천	13.4	12.3	-1.2	-0.6	-0.6	51.3	48.7
	충청권	7.6	4.6	-3.0	-0.1	-2.9	4.3	95.7
	경상권	23.5	18.4	-5.1	0.0	-5.0	0.8	99.2
	전라권	10.6	8.2	-2.4	-0.2	-2.2	7.9	92.1
지역2	특/광역시	6.0	7.5	1.5	0.3	1.3	17.1	82.9
	도	7.3	6.4	-1.0	0.1	-1.0	-7.3	107.3
경제활동	상용	8.8	5.9	-2.9	-0.3	-2.7	9.6	90.8
	임시/일용	9.9	5.2	-4.7	-0.8	-4.0	16.5	83.5
	자영자	13.1	8.6	-4.5	-0.7	-3.8	15.3	84.7
	실업	7.7	6.4	-1.3	-0.1	-1.3	6.0	94.0
	비경활	9.5	6.6	-2.9	-0.1	-2.8	4.4	95.6
주거	자가	1.8	1.1	-0.6	0.0	-0.6	1.6	96.8
	전/월세	19.8	15.7	-4.1	-0.4	-3.7	8.6	91.4
가구원수	1인	16.1	15.6	-0.5	0.2	-0.7	-39.6	139.6
	2인	8.8	5.6	-3.3	-0.2	-3.1	5.5	94.5
	3인	7.4	5.9	-1.5	-0.1	-1.4	5.4	94.6
	4인	7.0	5.2	-1.8	-0.2	-1.7	9.3	90.7
	5인이상	11.2	7.1	-4.2	0.0	-4.2	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12-17차조사 원자료.

## 2. 자산항목별 불평등 기여도 분해와 비교

2009~2014년 기간 동안 자산빈곤의 감소는 분배개선효과가 성장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분배개선효과가 어떠한 자산항목에서 야기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자산을 5분위로 구분해 자산항목별 평균(증가율)과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자. 전체 가구의 자산은 양 기간동안 5.1%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산의 대부분(100% 초과)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감소(-6.5%)와 부채의 증가(10.4%)에 기인한 것이다. 금융자산은 31.7% 기타자산은 10.4%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7> 자산 5분위별 자산항목 평균 및 비중 추이

		평균		증가율 (2009-2014)	비중	
		2009	2014		2009	2014
전체	금융자산	2170	2857	31.7	9.7	13.5
	부동산자산	23784	22235	-6.5	106.4	104.8
	기타자산	723	895	23.7	3.2	4.2
	부채	4324	4774	10.4	19.3	22.5
	자산1	22353	21213	-5.1	100.0	100.0
1분위	금융자산	241	530	119.6	-36.8	-108.3
	부동산자산	3047	3775	23.9	-464.5	-771.1
	기타자산	240	332	38.1	-36.6	-67.7
	부채	-4185	-5126	22.5	637.9	1047.0
	자산1	-656	-490	-25.4	100.0	100.0
2분위	금융자산	639	1089	70.4	11.2	14.2
	부동산자산	6401	8374	30.8	112.6	109.1
	기타자산	422	668	58.4	7.4	8.7
	부채	-1776	-2457	38.3	-31.2	-32.0
	자산1	5685	7674	35.0	100.0	100.0
3분위	금융자산	1400	1869	33.5	12.0	12.8
	부동산자산	12097	15433	27.6	103.9	106.1
	기타자산	562	888	57.9	4.8	6.1
	부채	-2412	-3639	50.9	-20.7	-25.0
	자산1	11648	14551	24.9	100.0	100.0
4분위	금융자산	2360	3151	33.5	10.8	13.1
	부동산자산	23311	24589	5.5	106.7	102.0
	기타자산	791	1119	41.4	3.6	4.6
	부채	-4612	-4755	3.1	-21.1	-19.7
	자산1	21851	24104	10.3	100.0	100.0
5분위	금융자산	6202	7642	23.2	8.5	12.7
	부동산자산	74005	58983	-20.3	101.1	98.0
	기타자산	1600	1466	-8.4	2.2	2.4
	부채	-8641	-7890	-8.7	-11.8	-13.1
	자산1	73165	60202	-17.7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12-17차조사 원자료



자산 5분위별로 구분해 보면, 5분위의 부동산자산이 20.3% 감소함에 따라 상위 20%가구의 자산이 17.7% 감소하였으나, 1~4분위의 부동산자산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3분위). 하위 20%의 1분위 가구에서는 금융자산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119.6%), 부채는 중간에 위치한 3분위에서 크게 증가하였다(50.9%)

즉, 2008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고소득층의 부동산자산가치가 하락한 반면, 중하위계층은 부동산자산 뿐만아니라 금융자산과 기타자산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자산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보다 엄밀하게 자산항목별로 불평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쇼록스(Shorrocks, 1982)의 분해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 불평등은 2009년 1.99에서 2014년 1.41로 2009년 자산불평등에 대한 상대적기여도는 부동산자산이 96.4%로 나타나 자산 불평등에 상당히 기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에는 89.4%로 기여도가 감소했다. 반면, 금융자산과 부채의 불평등 기여도는 소폭 증가하였다.

2009년을 기준으로 세부항목별 기여도를 구해보면, 부동산자산 기여도(96.4%)의 경우 주택의 부동산이 59.8%, 자가가 35.6%로 분해되어 주택의 부동산의 불평등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기여도(8.4%)는 은행예금이 6.5%, 주식/채권이 1.4%로 예금의 기여도가 가장 컸다. 부채의 기여도(-5.8%)는 전세/임대보증금 -3.1%, 은행대출 -2.7%로 나타났다(부표 1 참조). 2014년의 불평등 기여도의 세부비중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주택의 부동산의 기여도가 48.6%로 감소했으며(주로 고소득층으로 추정), 은행예금의 기여도가 8.9%로 소폭 증가했다.

양기간의 불평등 변화를 동태적으로 살펴보면, 자산 불평등 감소에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11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14.9% 기여하였으며,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의 경우 불평등 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산항목별 불평등 기여도 분해

(1) 정태적 요인	상대적 기여도 (a)	절대적 기여도 (b)	소득 비중 (c)	항목별 CV	항목별 CV / 전체 CV	(2) 동태적 요인	2009-2014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2009	금융자산	8.4	0.17	9.7	3.32	금융자산	-0.2	0.8
	부동산자산	96.4	1.92	106.4	1.90			
	기타자산	1.0	0.02	3.2	2.77			
	부채	-5.8	-0.12	-19.3	3.06			
2014	자산1	100.0	1.99	100.0	1.99	부동산자산	-32.9	113.6
	금융자산	11.4	0.16	13.5	2.56			
	부동산자산	89.4	1.26	104.8	1.40			
	기타자산	1.2	0.02	4.2	1.62			
14	부채	-2.1	-0.03	-22.5	3.10	기타자산	-0.1	0.5
	자산1	100.0	1.41	100.0	1.41			
	부채					부채	4.3	-14.9
	자산1							
						순자산1	-28.9	100.0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 빈곤과 불평등의 추세를 살펴보고, Datt & Ravallion(1992), Shorrocks(1982, 2013)의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빈곤율의 변화를 성장요인과 분배요인으로 구분해 보았다. 자산은 순자산(=금융자산+부동산자산+부채)인 자산1, 순자산에서 자가 및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한 자산2, 금융자산인 자산3으로 구분하였으며, 주로 자산1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자산 절대빈곤율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200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3배로 정의된 절대빈곤율1을 기준으로 보면 자산1-3 모두 2009년 자산 절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빈곤율이 2009년 보다 낮았다(자산1 8.7%→6.5%). 최저생계비의 6배로 정의된 절대빈곤율2도 절대빈곤율1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절대빈곤율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절대빈곤율1과는 달리 절대빈곤율2에서는 자산1-3 모두 2010년 이후 빈곤율이 감소하다 2013년 일제히 소폭이나마 상승하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자산1을 기준으로, 자산 상대빈곤율과 상위 자산층의 비율은 감소하고 자산 중산층의 비중은 2009년 32.7%에서 2014년 37.7%까지 상승하였다. 분위별 자산점유율을 보면, 1-4분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4년이 점유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5분위만이 유일하게 자산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 65.6%에서 2014년 57.3%로 나타났다.

셋째, 자산1을 기준으로 자산빈곤율 변화 요인을 구분해 보면, 2009년-2015년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분배(개선)효과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대부분 90% 내외로 높게 나타나, 자산빈곤층에 유리하도록 분배구조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장효과는 10% 내외로 낮지만, 자산빈곤층의 빈곤율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성장은 친빈곤성장(pro-poor growth)으로 볼 수 있다. 다만, 50대와 대졸이상, 도지역, 1인가구에서는 빈곤율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성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08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고소득층의 부동산자산가치가 하락한 반면, 중하위계층은 부동산자산 뿐만아니라 금융자산과 기타자산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자산 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불평등에 대한 자산항목별 상대적기여도는 부동산자산이 96.4%(2009년)로 나타나 자산 불평등에 상당히 기여했으나, 2014년에는 89.4%로 기여도가 감소하였다. 반면, 부채는 불평등 감소효과는 줄어들었으며, 금융자산과 부채의 불평등 기여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불평등 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빈곤층의 주택마련 및 임대료 부담 감소 등 자산빈곤층의 부동산자산 형성이 점진적으로 가능하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크며, 자산빈곤율 변화에 대한 기여도 역시 부동산 자산가치의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산빈곤층의 부채를 감소시키고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부채는 주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부채가 상당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당분간 유지해 자산빈곤층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제도와 아동발달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 등을 예산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보다 확대(대상, 지원비율 등)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산빈곤과 소득빈곤은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취업성공패키지 등 근로유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쟁점들로는 자산빈곤의 지속성을 감안할 때 자산빈곤의 개념 정의, 패널자료 분석을 통한 자산빈곤층의 진입과 탈출 확률(자산중산층의 하향이동과 자산빈곤층의 고착화), 소득불평등과 자산 격차사이의 관계 등은 좀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 구축을 통해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 4인, 『우리나라의 빈곤함정』, 해남, 2013.
- 유태균·강성민·정찬미, “중고령자의 자산빈곤 특성 및 자산빈곤이행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5(4), 겨울, pp.37-54m 2014..
- 임병인, “자산빈곤을 추정의 쟁점과 자산빈곤을 시사”,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84호, 2012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7-32, 2012.
- 이상은·이은혜·정찬미, “한국에서의 자산빈곤의 변화추이와 요인분해”, 『보건사회연구』 31권 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03-37, 2011.
- 한국은행, “소득분배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MONTHLY BULLETIN』, April 2006.
- Datt, G., Ravallion, M., Growth and redistribution components of changes in poverty measures—a decomposition with applications to Brazil and India in the 1980s. *Journal of Deveiopment Economics* 38, 275-296, 1992.
- Shorrocks, A. 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1), 193.211, 1982.
- Shorrocks, A. F., Decomposition procedures for distributional analysis: a unified framework based on the Shapley valu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1, 99-126, 2013.

<부표 1> 자산 세부항목별 불평등 기여도 분해

1) 정태적 요인

		상대적 기여도 (a)	절대적 기여도 (b)	소득비중 (c)	항목별 CV	항목별 CV / 전체 CV	
2009	금융 자산	은행예금	6.5	0.13	6.8	3.54	1.78
		주식/채권/신탁	1.4	0.03	1.5	11.60	5.84
		저축성보험	0.2	0.00	1.2	3.73	1.87
		받을 갯돈	0.0	0.00	0.0	13.34	6.71
		빌려준돈	0.2	0.00	0.2	19.80	9.97
		기타금융자산	0.0	0.00	0.0	29.21	14.70
	부 동 산	자가	35.6	0.71	61.5	1.85	0.93
		전세보증금	0.6	0.01	8.3	2.32	1.17
		주택외 부동산	59.8	1.19	34.9	4.18	2.11
		주택외 보증금	0.4	0.01	1.7	5.21	2.62
	기 타	자동차	0.7	0.01	2.9	1.74	0.88
		기타 자산	0.3	0.01	0.4	19.07	9.59
	부 채	금융기관부채	-2.7	-0.05	-14.0	3.77	1.90
		비금융기관부채	0.0	0.00	-0.2	13.14	6.61
		개인적 빌린돈	0.0	0.00	-0.7	10.70	5.38
		전세,임대보증금	-3.1	-0.06	-4.5	3.95	1.99
		갚아야할 갯돈	0.0	0.00	0.0	32.21	16.21
		기타 부채	0.0	0.00	0.0	89.92	45.24
	자산1		100.0	1.99	100.0	1.99	1.00
2014	금융 자 산	은행예금	8.9	0.13	9.0	3.13	2.21
		주식/채권/신탁	1.2	0.02	1.0	10.84	7.68
		저축성보험	1.3	0.02	3.2	2.75	1.95
		받을 갯돈	0.0	0.00	0.0	16.44	11.64
		빌려준돈	0.0	0.00	0.1	29.57	20.94
		기타금융자산	0.0	0.00	0.1	11.22	7.94
	부 동 산	자가	39.4	0.56	63.8	1.36	0.96
		전세보증금	0.9	0.01	10.8	2.48	1.75
		주택외 부동산	48.6	0.69	28.8	3.42	2.42
		주택외 보증금	0.5	0.01	1.4	4.86	3.44
	기 타	자동차	1.1	0.02	3.9	1.32	0.93
		기타 자산	0.1	0.00	0.3	14.76	10.45
	부 채	금융기관부채	-0.5	-0.01	-16.2	2.93	2.08
		비금융기관부채	0.0	0.00	-0.2	13.35	9.46
		개인적 빌린돈	2.2	0.03	-0.8	23.66	16.76
		전세,임대보증금	-4.1	-0.06	-5.2	5.99	4.24
		갚아야할 갯돈	0.0	0.00	0.0	31.87	22.57
		기타 부채	0.3	0.00	-0.1	55.18	39.08
	자산1		100.0	1.41	100.0	1.41	1.00

2) 동태적 요인

		2009-2014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금융자산	은행예금	-0.2	0.6
	주식/채권/신탁	-0.6	1.9
	저축성보험	0.7	-2.3
	받을 깃돈	0.0	0.0
	빌려준 돈	-0.2	0.7
	기타금융자산	0.0	0.0
부동산	자가	-7.7	26.4
	전세보증금	0.0	-0.1
	주택외 부동산	-25.2	87.2
	주택외 보증금	0.0	0.1
기타	자동차	0.1	-0.3
	기타 자산	-0.2	0.9
부채	금융기관부채	2.4	-8.2
	비금융기관부채	0.0	0.0
	개인적 빌린 돈	1.7	-6.0
	전세, 임대보증금	0.2	-0.7
	갚아야할 깃돈	0.0	0.0
	기타 부채	0.0	0.0
전체		-28.9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12-17차조사 원자료